

1차 제시안, 논의·질의·정리할 것 없다



5차 집단교섭, 사측 1차 안 제시

6월 2일(목) 14시 계양전기 안산공장에서 2022년 집단교섭 5차 교섭이 열렸다. 4월 2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차에서는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설명했고, 3차, 4차에 걸쳐 사용자의 요구안에 대한 질의, 노동조합의 답변을 거쳤다.

지난 주는 교섭을 한주 순연하고 요구안에 대한 각 사 사용자들의 고민을 나누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 논의를 담아 첫 제시안을 내는 날,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사업장 안에서 교섭을 열었다.

안 있음, 근데 안 없음

사용자 워크숍을 거친 첫 제시안은 제시안이 있으나 안의 내용이 없었다.

- ① 임금인상은 11개 사업장 전체 ‘추후 제시’
- ② 노조 통일요구는 산업전환협약, 위험성평가는 ‘중양협약 따른다’, 확대간부 교육시간 ‘안 없음’
- ③ 지부 공동요구는 중양교섭 및 집단교섭 참가에 대해서는 ‘2020년 합의사항 준수’,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 세탁과 추가전임 처우보장에는 ‘안 없음’으로 답했다.

조합은 “첫 제시안은 굳이 서면으로 주지 않아도

될 정도다. 안이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했고, 오늘 조금 더 논의해서 안을 제시할 의향을 물었으나 사측은 어렵다고 답했다.

차기 교섭, 4가지 당부

조합은 “논의할 것도 질문할 것도 정리할 안도 없다”며 ① 다음 주에는 진전된 안이 있어야 토론할 수 있을 것, ② 노조 통일 요구 등은 중양 합의에 따른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안을 만들어가야 중양의 진전도 가능, ③ 지부 공동요구에 전폭적인 의견 내야 ‘원만한 교섭’하자는 사측 진심 확인할 것, ④ 차기에는 사업장 임금까지 안 제시 바람 등 4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교섭을 마쳤다.

3년 만에 대면 인사, 앞으로 쪽

6차 교섭은 다음 주 6월 9일(목) 우창정기지회에서 열린다.

3년 만에 사업장 안에서 진행한 집단교섭, 교섭위원들은 계양전기 안산공장 현장순회를 하며 조합원들과 대면 인사를 나눴다. 이후 공단을 돌며 미조직 실천을 함께 한 후 뒤풀이까지, 오랜만에 감염병 전 일상투쟁 감각을 되찾을 수 있었다.

